HANA US Weekly

해외주식분석실 | 2026.3.9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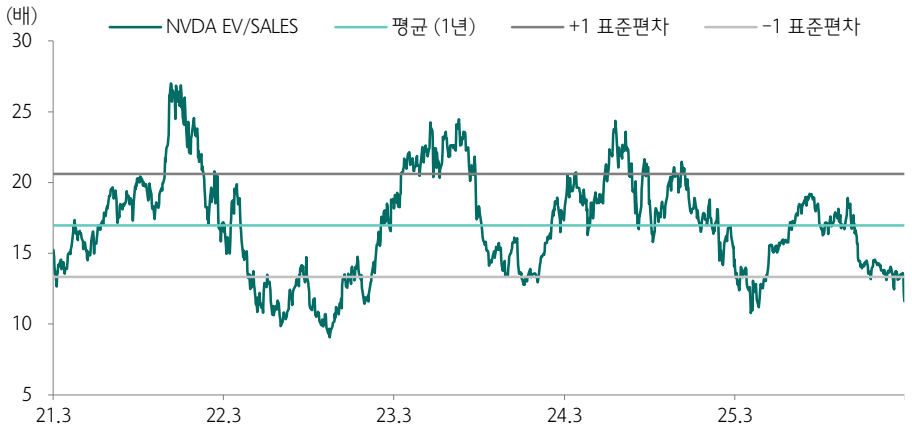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주간 이슈: 엔비디아-수출 규제 노이즈와 중동 리스크가 야기한 변동성은 매수 기회

단기 노이즈가 있더라도 펀더멘털 견조한 엔비디아 매수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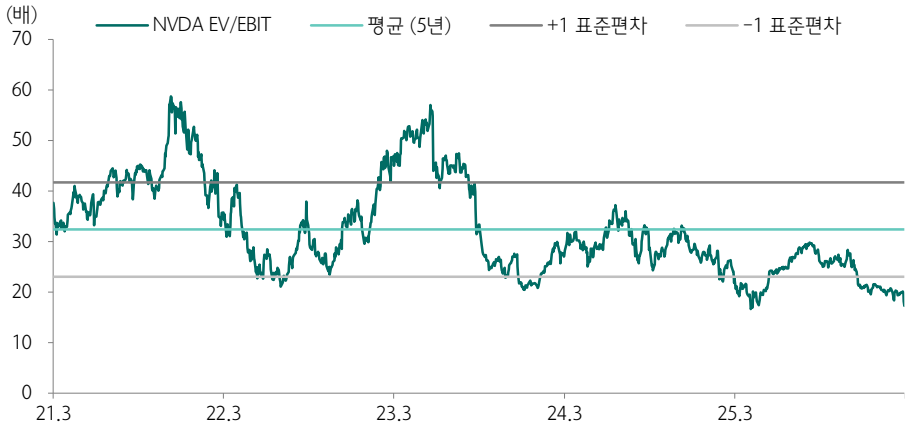
- 미국 상무부의 미국 AI용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허가제 도입) 소식이 있었다. 엔비디아의 단기 투자심리를 약화시킬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펀더멘털이나 수요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낮아진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도 매력적이다. 12개월 선행 기준 EV/Sales는 11.4배(5년 평균 17배, 2년 평균 17.1배), PER은 21.4배(5년 평균 43.6배, 2년 평균 38.1배), EV/EBIT은 17.2배(5년 평균 32.4배, 2년 평균 26.3배)다. 월간 자료에서 주장한 Buy The Dip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다.
- 공식적으로 확정되진 않았으나 수출 수량별 차등 허가제 가능성이 대두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1,000개 미만의 소규모 수출의 경우 비교적 간단한 심사를 거치지만 수출업체들(엔비디아, AMD 등)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수입업체는 감시를 받으면서 '클러스터링 방지 소프트웨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사용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칩들을 물리적으로 연결해 거대한 슈퍼컴퓨터로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10만 개 이하의 중/대규모 수출의 경우 수입 국가와 미국 사이에 정부 차원(G2G)의 안보 보증이 필요하다. 초대형 수출(20만 개 이상)의 경우 수입국이 미국 내 AI 인프라에 직접 투자해야 하는 조건이 논의되고 있다. 필요할 경우 미국 수출통제 담당 공무원이 해외 데이터센터를 현장 점검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도 포함될 전망이다.
- 미국 정부가 수출 규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중국 정부의 GPU 우회 조달을 막기 위해서다. 미국 정부는 AI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기술 격차를 벌리는 것이 목적이다. 컴퓨팅(GPU) 공급을 끊어 강제적으로 중국의 AI 모델 개발 속도를 늦추려는 의도일 것이다. 트럼프 1기, 바이든 행정부에 걸쳐 고성능 칩뿐만 아니라 미국산 제조 장비 수출까지 막았다. 트럼프 2기에도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중국 기업들은 제3국을 통해 우회 수입하거나, 데이터센터에 원격으로 접속해 AI 클라우드를 빌려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미국 정부의 규제 검토 소식과 최근 불거진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충돌은 엔비디아의 단기 투자심리엔 부정적이겠지만 치명적인 악재는 아니다. 수출 규제는 승인 절차로 인해 AI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의 매출 인식 지연, 사후 관리 의무로 인한 비용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중동의 리스크는 매크로 불확실성을 자극해 주가 변동성을 확대할 수도 있다. 다양한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을 지켜줄 것으로 생각하는 요인은 강력한 수요와 공급 제약이다. 현재 엔비디아 제품의 수요는 초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강력한 자본지출 덕분이다. 수출 허가가 지연된 제품이나 매크로 우려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이탈 물량조차 초거대 기술 기업들이 흡수할 여지가 충분하다.
-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에 중국 매출을 반영하지 않은 점도 긍정적이다. 미국 상무부의 수출 규제가 언급되기 전 엔비디아는 H200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제한적인 TSMC의 생산라인에서 중국 수출용 H200을 생산하는 대신 베라 루빈(Vera Rubin) 양산으로 교체하려 한다. 작년 12월 미국 정부로부터 H200 수출 승인이 났지만 지난 2월 상무부는 H200의 수출 승인 건수가 없다고 밝혔다. 엔비디아는 규제가 야기한 기회비용 대신 고가의 신제품 양산에 부족한 TSMC의 생산능력을 활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국의 우회 수입 가능성도 감안했을 것이다. 엔비디아의 경쟁사 대비 강점 중 하나는 CoWoS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가의 신제품 공급에 집중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더욱 견고히 하고 기업의 이익도 빠르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의 차트: 엔비디아 EV/Sales(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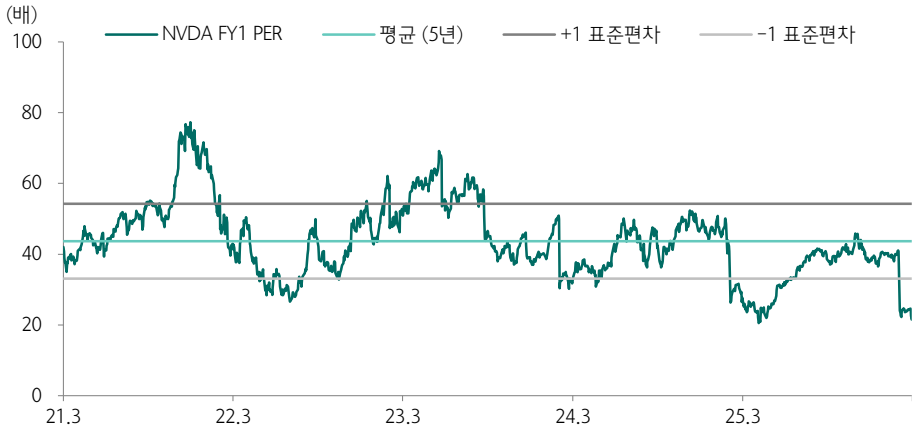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오늘의 차트: 엔비디아 EV/EBIT(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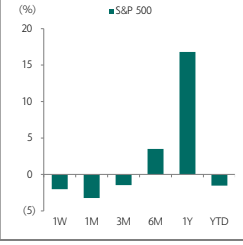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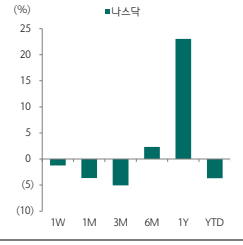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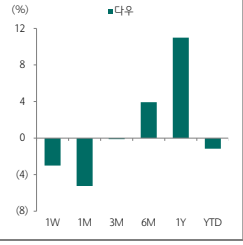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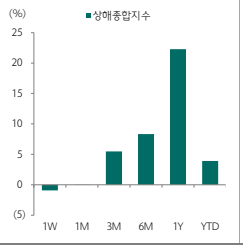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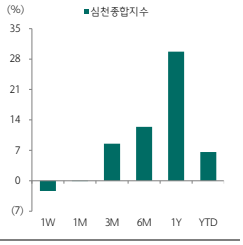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오늘의 차트: 엔비디아 FY1 PER(5년)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주요 지수 및 수익률

지수	S&P 500	NASDAQ	Dow	상해종합지수	심천종합지수
종가	6,740.0	22,387.7	47,501.6	4,124.2	2,698.3
1W (%)	-2.0	-1.2	-3.0	-0.9	-2.4
					

주) 15시 30분 기준 가격

Review & Preview

≫ 지난 주(3월 2일~3월 6일) 리뷰: 미국-이란 전쟁이 야기한 불안

- 3월 1주차 미국증시 주요 지수 수익률은 모두 약세였다. 다우지수 -3%, S&P 500 -2%, 나스닥 -1.2% 등이다. S&P 500 동일가중지수는 3.4%, 러셀 2000은 4.1% 하락했다. 변동성 지수(VIX)는 48.5% 상승했다. 성장주(VUG)와 가치주(VTV) 모두 부진했는데, 각각의 주가 변동은 -0.6%, -3.5%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와중에도 성장주에 대한 저가매수세 유입을 볼 수 있다.
- 증시 변동성 확대를 야기한 것은 중동의 지정학적 갈등이 유발한 경제 불안으로 보인다. 2월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투가 본격화되면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2월 27일 67달러였던 WTI는 3월 6일 90달러로 35.6% 올랐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완화를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보호와 200억 달러 규모의 재보험 프로그램 등의 계획을 언급했다. 예상보다 높은 PPI와 높아진 ISM 제조업 PMI의 가격지수(물가)가 발표된 상황에서 유가의 강세는 통화정책에 대한 불안을 자극했다. 부진한 고용지표까지 겹치며 경제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우려를 키웠을 것이다.
- 상승 섹터는 에너지(+1.0%)가 유일하다. 하락 상위 섹터는 소재(-7.2%), 필수소비재(-4.9%), 헬스케어(-4.6%), 산업재(-4.1%) 등이다. 에너지는 유가 상승이 긍정적 모멘텀이 됐다. 소재와 산업재는 금리 및 달러의 강세와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약화 우려가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방어적 성격의 섹터임에도 필수소비재와 헬스케어는 하락했다. 필수소비재와 헬스케어는 에너지 다음으로 YTD 기준 가장 견조한 수익률을 보인 섹터다. 증시 변동성 확대로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보인다.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섹터에 올해 부진했던 정보기술(-0.4%), 경기소비재(-1.4%) 등이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 증시 변동성을 활용한 성장주 저점 매수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다.
- 성장주 중에서도 올해 'AI 공포 내러티브'로 약했던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매수세가 특징적이다. 미국 소프트웨어 ETF인 IGV는 지난주 증시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7.8% 상승했고, AI 관련 대표 하드웨어 부품인 반도체 ETF(SOXX)는 8.2% 하락했다. SaaS 기업들의 주가도 상승이 두드러졌다(ADBE +8.1%, CRM +3.8%, NOW +15.1% 등). 초대형 기술기업(M7) 중 마이크로소프트(+4.1%), 아마존(+1.5%), 엔비디아(+0.4%)만 상승했다(META -0.5%, TSLA -1.4%, AAPL -2.5%, GOOGL -4.2%).
- 전쟁 모멘텀을 만난 미국 방산기업들의 주가는 양호했다(LMT +2.1%, RTX +3.5%, NOC +4.4%, GD +1.8% 등).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방산기업들의 CEO들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졌다. 참석한 기업은 RTX, 록히드마틴, 노스롭 그루먼, 보잉, 허니웰, L3해리스 테크놀러지, BAE 시스템 등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력 강화 지시에 따라 미국의 주요 방산기업들은 최첨단 고정밀 무기 체계의 생산 능력을 현재보다 4배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급망 병목 해결을 위해 방위생산법을 적극 활용하면서 생산 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정부의 장기적인 구매 확약 등이 예상된다.

≫ 이번 주(3월 9일~3월 13일) 프리뷰: 미국과 이란, 유가, 오라클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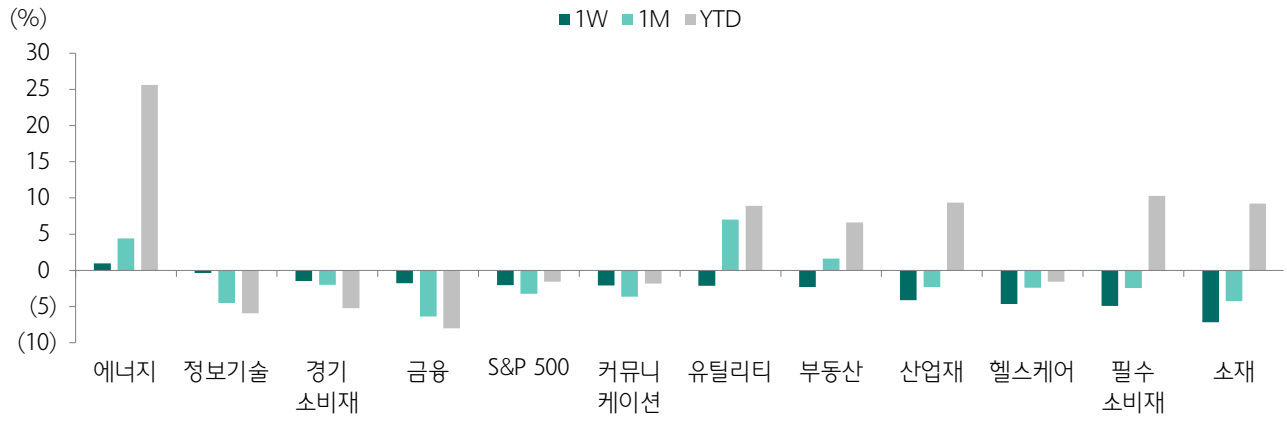
- 이번 주 미국의 시장참여자들은 중동의 정세와 유가 및 인플레이션 지표 등에 주목할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선출됐다는 소식에 유가는 100달러를 넘겼다.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완화 가능성, 유가의 상승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투기적인 수급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음에도 유가 상승을 통제할 순 없었다. 시장참여자들은 이란의 강경한 저항을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 하메네이의 차남을 선출한 세력이 이란의 강경파 군부 세력이란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주 소비자 물가지수, PCE 가격지수 등 통화정책과 밀접한 경제 지표 발표가 있다. 3월 3주 차엔 FOMC(3월 17일~18일)가 있다. 통화정책 관련 주요 이벤트를 앞둔 상황에서 유가 상승은 시장참여자들의 불안을 자극할 여지가 있다.
- 현지시각 11일엔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다. 헤드라인 CPI의 컨센서스는 YoY +2.5%, MoM +0.3%이며, 1월 발표 수치는 YoY +2.4%, MoM +0.2%다.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약간 상승할 것이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핵심 CPI에 대한 시장참여자들의 예상치는 YoY +2.5%, MoM +0.2%다. 이전치는 YoY +2.5%, MoM +0.3%다. 시장은 핵심 소비자 물가가 단기적으로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ME Fed Watch의 금리 동결 전망은 3월 95.5%, 4월 81.7%다. 시장참여자들은 파월이 해임되기 전까진 금리가 동결될 것을 반영하고 있다. 5월 금리 동결 전망은 51.3%로 전쟁 발발 전 42.7%에서 높아졌다. 25bp 금리 인하 전망은 41.5%로 27일 45.9%에서 낮아졌다.
- 기업 실적에선 오라클의 실적에 시장참여자들은 주목할 것이다. 양호한 실적과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시장참여자들이 오라클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센터 투자 지속 여부다. 오라클 관련 작년 신용 불안 문제에 이어 블루아울의 미시간 프로젝트 철회(현지시각 17일) 등의 문제들이 있었다. 현지시각 2026년 3월 7일 오라클 관련 오픈 AI와 함께 텍사스에 조성하고 있던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 철회 소식이 있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양사의 자금 조달 협상 지연, 오픈 AI의 수요 예측 변경 등이 이유라고 한다.
- 취소된 데이터센터 건설 프로젝트는 전면 철회가 아닌 추가 확장 계획의 철회다(1.2GW 규모에서 2GW로).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에빌린 부지에는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가 운영할 8개의 데이터센터가 있는데, 그중 2개는 이미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전역에 4.5GW 규모 데이터센터 파트너십도 여전히 유효하다. 오라클이 떠난 자리는 메타가 개발사인 크루소와 임대 협상에 돌입했다고 한다. 데이터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전력 등의 인프라가 갖춰진 희소한 부지이기 때문이다. 엔비디아도 메타와 크루소 간의 계약을 지원했다고 한다. 오라클과 오픈AI의 투자 철회를 AI 투자 위축에 대한 걱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하다.
-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경제지표는 10일 2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예상치 99.8, 이전치 99.3), 2월 기존 주택 매매(예상치 389만 건, 이전치 391만 건), 11일 EIA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 OPEC 월간 보고서, 2월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 지수(예상치 YoY +2.5%/MoM +0.3%, 이전치 YoY +2.4%/MoM +0.2%), 2월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예상치 YoY +2.5%/MoM +0.2%, 이전치 YoY +2.5%/MoM +0.3%), EIA 주간 원유 재고(이전치 347만 5천 배럴), 12일 미국채 10년물 입찰, 주간 실업 수당 청구건수(예상치 21만 6천 건, 이전치 21만 3천 건), 1월 무역 수지, 1월 주택 착공(예상치 134만 건, 이전치 140만 4천 건), 1월 건축 허가(예상치 141만 건, 이전치 145만 5천 건), 13일 미국채 30년물 입찰, 3분기 GDP(예상치 QoQ +1.4%, 이전치 +4.3%), 1월 헤드라인 PCE 가격지수(예상치 YoY +2.9%/MoM +0.3%, 이전치 YoY +2.9%/MoM +0.4%), 1월 핵심 PCE 가격지수(예상치 YoY +3.1%/MoM +0.4%, 이전치 YoY +3.0%/MoM +0.4%), 1월 내구재 주문(예상치 MoM +0.5%, 이전치 MoM -0.4%), 1월 JOLTS 구인이직 건수(예상치 684만 건, 이전치 654만 2천 건), 3월 미시간 소비자 신뢰지수(예상치 55.9, 이전치 56.6), 3월 미시간 5년/1년 기대 인플레이션 등이 있다.
- 실적 발표가 예정된 주요 기업으로는 현지시각 9일 HPE, 10일 ORCL / BNTX / AVAV / UEC, 11일 PATH, 12일 ADBE / DG / ULTA / LEN / TTAN / S / BLDP 등이 있다.

표 X. 주요 지표 및 수익률

지수명	상장 국가	종가 (MM/DD)	수익률(%)						
			1D	1W	1M	3M	6M	1Y	YTD
S&P 500	미국	6,740.0	-1.3	-2.0	-3.2	-1.5	3.5	16.8	-1.5
나스닥	미국	22,387.7	-1.6	-1.2	-3.7	-5.0	2.3	23.0	-3.7
다우	미국	47,501.6	-0.9	-3.0	-5.3	-0.1	3.9	11.0	-1.2
STOXX600	유럽	598.7	-1.0	-5.5	-3.7	3.6	8.4	8.2	1.1
KOSPI	한국	5,234.3	-6.3	-16.2	-1.2	26.3	60.6	104.2	24.2
KOSDAQ	한국	1,098.4	-4.9	-7.9	-2.6	17.9	33.2	50.9	18.7
상해종합지수	중국	4,124.2	0.4	-0.9	0.0	5.5	8.3	22.3	3.9
심천종합지수	중국	2,698.3	1.0	-2.4	-0.1	8.5	12.4	29.7	6.6
항셍테크지수	홍콩	25,757.3	1.7	-3.3	-4.7	1.3	-0.7	6.3	0.5
TOPIX	일본	3,518.5	-5.3	-9.7	-7.0	3.9	12.7	29.9	3.2
니케이 225	일본	52,159.8	-6.2	-10.2	-7.5	3.0	20.0	41.4	3.6
니프티 50	인도	24,450.5	-1.3	-4.1	-5.5	-5.4	-1.7	8.4	-6.4
Vietnam	베트남	1,767.8	-2.2	-6.0	0.7	1.2	8.0	33.3	-0.9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섹터별 수익률



종가 기준일: 2026.03.06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수익률 상승 상위 섹터

- 에너지: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갈등이 유발한 유가 상승이 긍정적 모멘텀

수익률 하락 상위 섹터

- 소재: 달러 강세 및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이 유발할 수요 위축 우려 반영
-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YTD 기준 가장 견조한 섹터. 방어적 성격의 섹터임에도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금주의 주요 이슈	
날짜	**주요내용**
3/2	**엔비디아, 광학 기업 루멘텀, 코히런트에 40억달러 투자**
	• 엔비디아, AI 데이터센터 네트워크 구축에 필요한 광학 기술 확보를 위해 루멘텀 홀딩스와 코히어런트에 각각 20억달러씩 총 40억달러 투자 발표. 양사와 비독점 구매 계약도 체결해 첨단 레이저 부품 및 광 네트워크 제품 생산 물량 확보.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GPU를 넘어 데이터센터 네트워크·광반도체 등 AI 인프라 전반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평가
3/4	**트럼프,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쟁서 가상자산 업계 지지**
	• 트럼프 대통령이 암호화폐 산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관련주 상승. 나스닥에서 코인베이스 글로벌은 14.57%, 비트코인 최대 보유업체 스트래티지는 10.37%,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써클은 5.66% 상승 마감. 트럼프는 '지니어스법'이 은행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암호화폐 산업과의 합의를 촉구. 현재 의회에서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이 논의 중이며,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제공이 예금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3/5	**미국 2월 민간고용 작년 7월 이후 최대 증가**
	• 미 고용정보업체 ADP, 2월 미국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6.3만명 증가했다고 발표. 시장 예상치(4.8만명)를 상회하며 2025년 7월 이후 최대 증가폭 기록. 건설 부문 1.9만명, 교육·의료 서비스 부문 5.8만명 증가하며 고용 확대를 주도한 반면 전문·서비스 부문에서는 3만명 감소. 임금 상승률은 YoY +4.5% 기록했으며 ADP는 고용 증가와 함께 기존 근로자의 임금 상승세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
3/6	**미국 2월 비농업 고용, 예상과 달리 감소**
	• 미 노동부, 2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 대비 9.2만명 감소했다고 발표. 시장 예상치(+5만명)를 크게 하회했으며 정부 셧다운 영향이 있었던 2025년 10월 이후 최대 감소폭 기록. 의료 부문에서 2.8만명 감소하며 고용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정보(-1.1만명), 운송·창고(-1.1만명), 연방정부(-1만명) 등에서도 감소. 실업률은 4.4%로 전월(4.3%) 및 예상치(4.3%)를 상회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2.0%로 하락. 한편 시간당 평균임금은 MoM +0.4%, YoY +3.8%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시장에서는 유가 상승과 함께 고용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3/7	**오픈AI·오라클, 텍사스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확장 철회**
	• 오픈AI와 오라클, 텍사스 애빌린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 철회. 현재 건설 중인 1.2GW 규모 시설은 예정대로 진행되나 당초 검토되던 2GW 확장 계획은 자금 조달 협상 지연과 수요 전망 변화로 중단. 해당 데이터센터는 5,000억달러 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의 핵심 거점으로, 업계에서는 해당 부지를 메타 등 다른 AI 기업이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
3/8	**트럼프, 이란 전쟁 종식 시점 네타냐후와 공동 결정 언급**
	•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의 전쟁 종료 시점을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함께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 인터뷰에서 두 지도자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적절한 시점에 전쟁 종식 여부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 다만 최종 결정권은 본인이 가지겠지만 네타냐후의 의견도 고려될 것이라고 덧붙임. 한편 백악관은 이번 전쟁의 지속 기간을 약 4~6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트럼프는 이란 차기 지도부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3/9	**국제 유가 배럴당 100달러 돌파**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충돌이 확대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 전쟁 장기화와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주요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 특히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인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커지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시장에서는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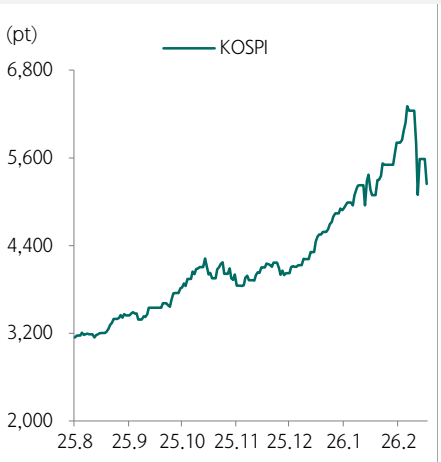
기업 실적 발표 일정(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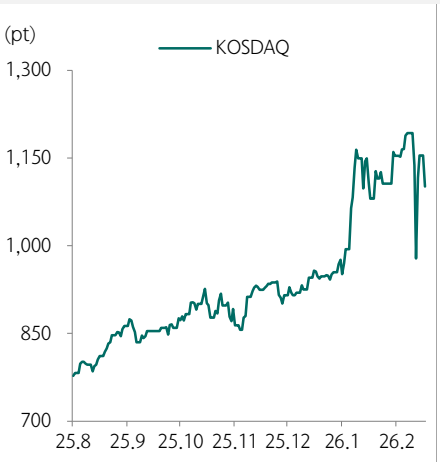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금
2	3	4	5	6
NCLH	CRWD, PLUG	AVGO, RGTI	CIEN, COST, KR	
9	10	11	12	13
HPE	ORCL, AVAV		ULTA, ADBE	
16	17	18	19	20
	LULU	MU	FDX	CCL
23	24	25	26	27
	OKLO, LUNR			
30	31			
	N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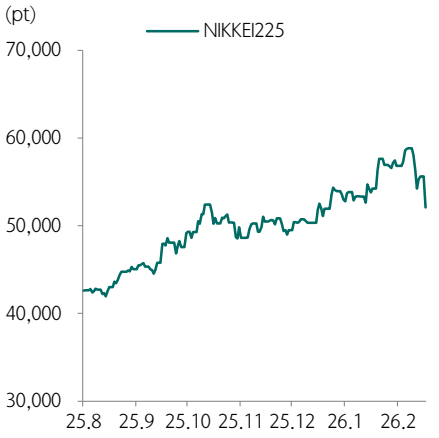
차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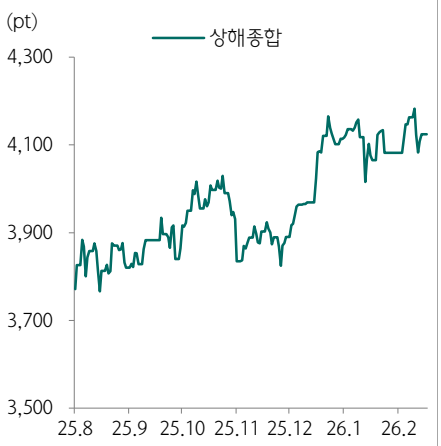
3/10(화)	• 미국 2월 기존주택판매 (예상 3.89M, 1월 3.91M)
3/11(수)	• 미국 2월 전년대비/전월대비 CPI 발표 (예상 --/--, 1월 2.4%/0.2%) • 미국 원유재고 (예상 --, 전주 3.475M)
3/12(목)	• 미국 3월 첫째 주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 (예상 216K, 이전 213K)
3/13(금)	• 미국 3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발표 (예상 --, 2월 56.6) • 3분기 GDP (QoQ) (예상 4.3%, 2분기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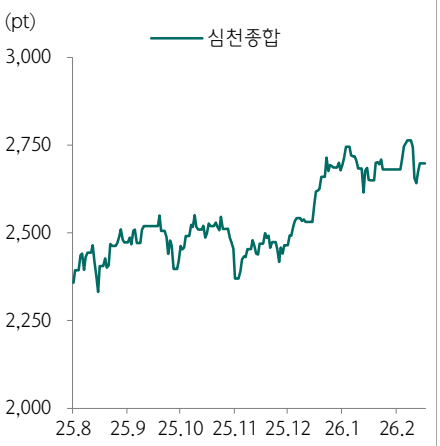
주요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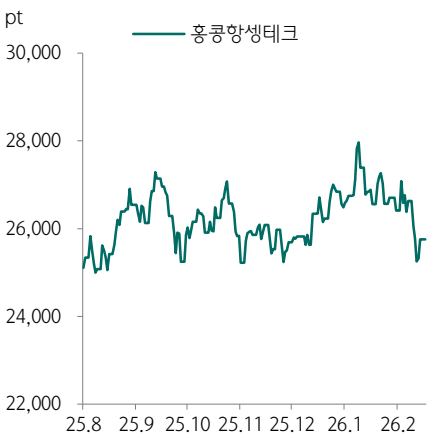

(pt)
KOSPI
6,800
5,600
4,400
3,200
2,0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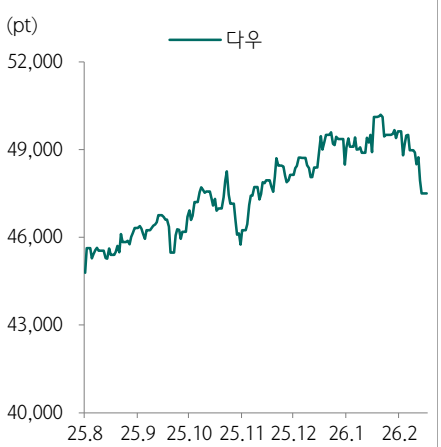

(pt)
KOSDAQ
1,300
1,150
1,000
850
7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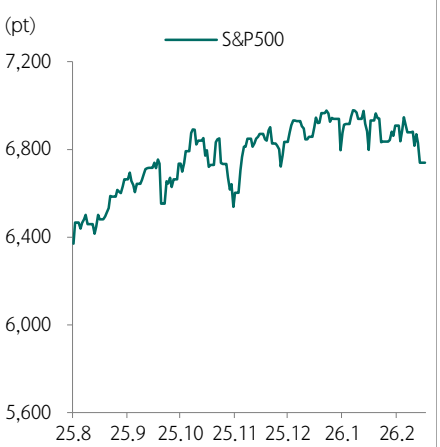

(pt)
NIKKEI225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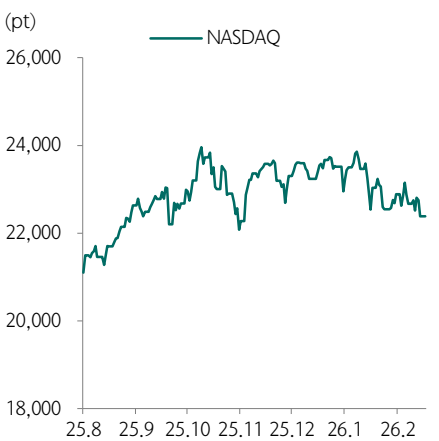

(pt)
상해종합
4,300
4,100
3,900
3,700
3,5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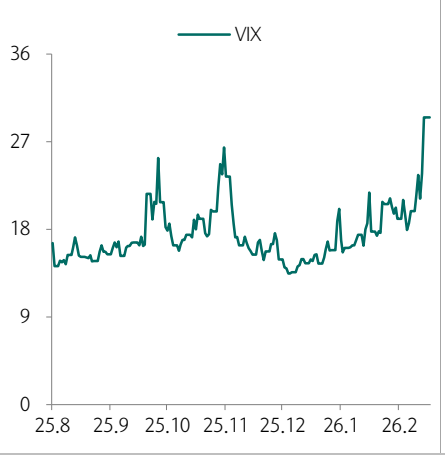

(pt)
심천종합
3,000
2,750
2,500
2,250
2,0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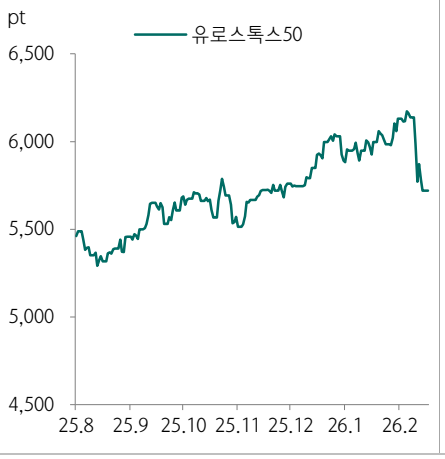

pt
홍콩항셍테크
30,000
28,000
26,000
24,000
22,0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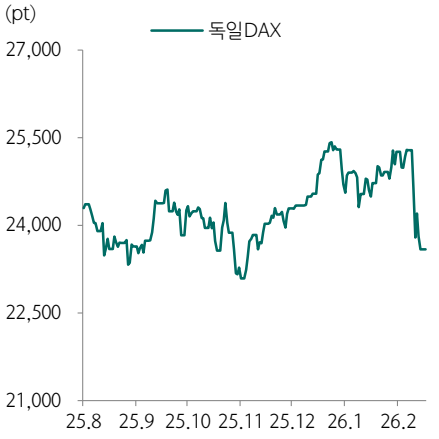

(pt)
다우
52,000
49,000
46,000
43,000
40,0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pt)
S&P500
7,200
6,800
6,400
6,000
5,6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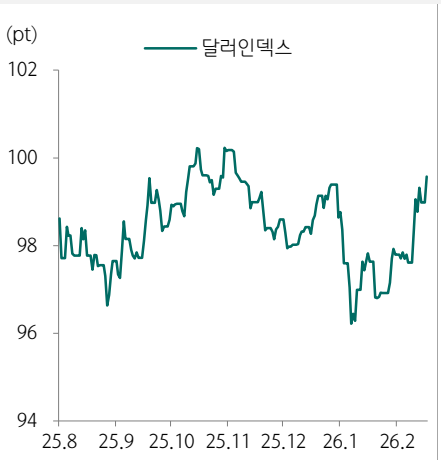

(pt)
NASDAQ
26,000
24,000
22,000
20,000
18,0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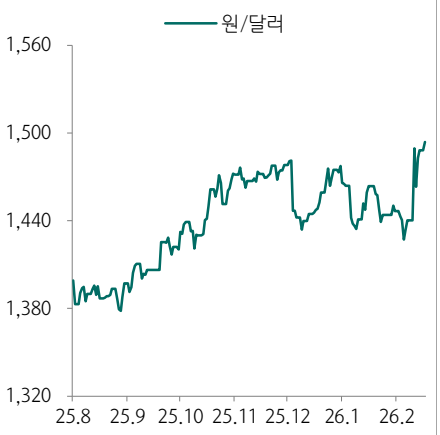

VIX
36
27
18
9
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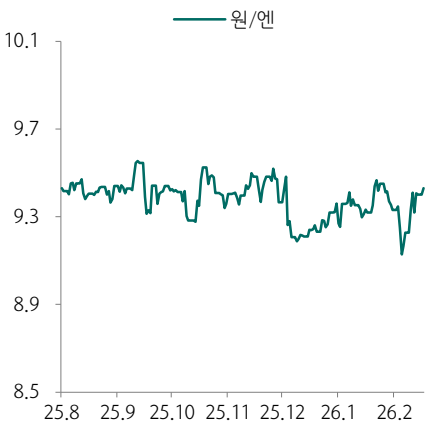

pt
유로스톡스50
6,500
6,000
5,500
5,000
4,5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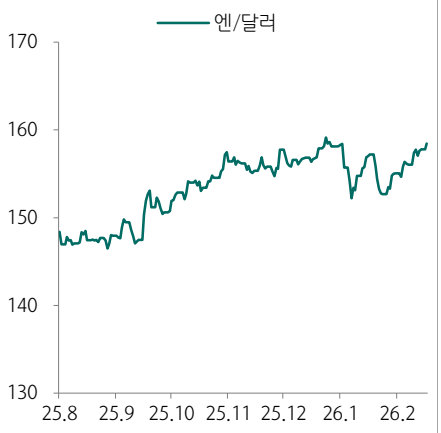

(pt)
독일DAX
27,000
25,500
24,000
22,500
21,0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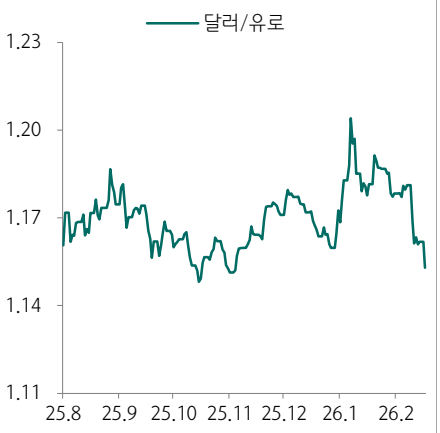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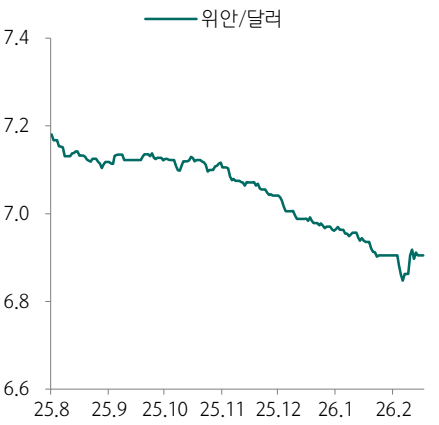

(pt)
달러인덱스
102
100
98
96
94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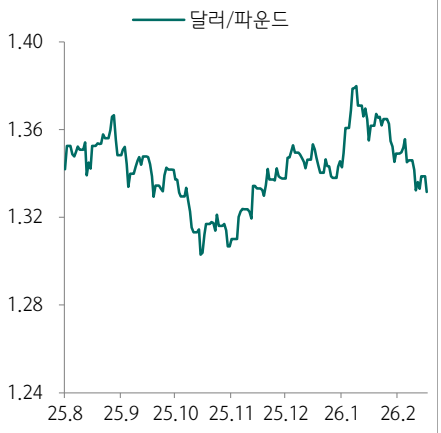

원/달러
1,560
1,500
1,440
1,380
1,32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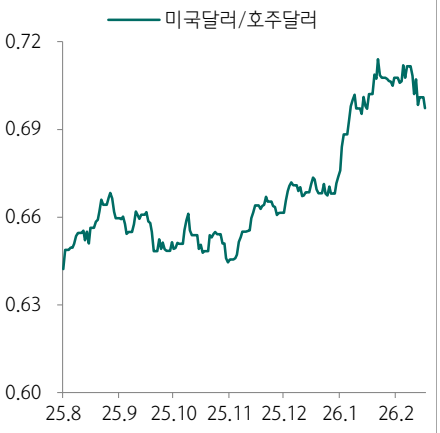

원/엔
10.1
9.7
9.3
8.9
8.5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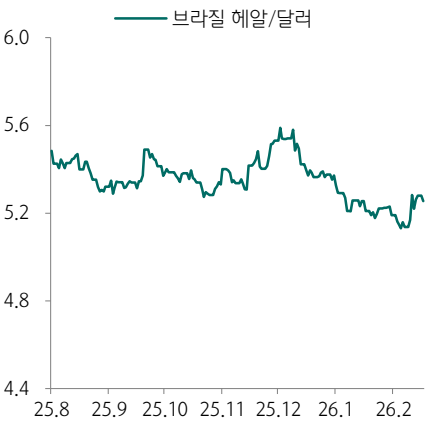

엔/달러
170
160
150
140
13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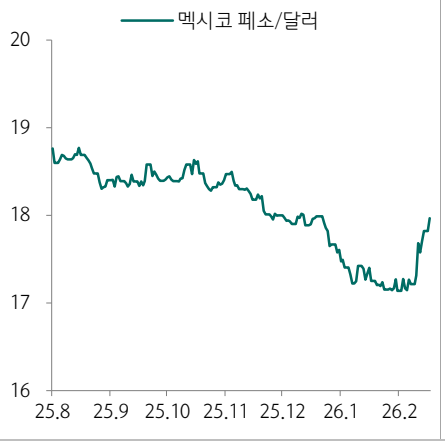

달러/유로
1.23
1.20
1.17
1.14
1.11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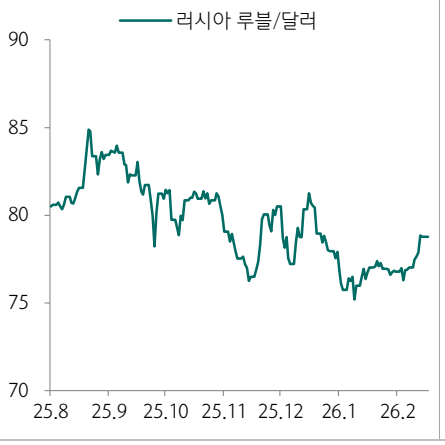

위안/달러
7.4
7.2
7.0
6.8
6.6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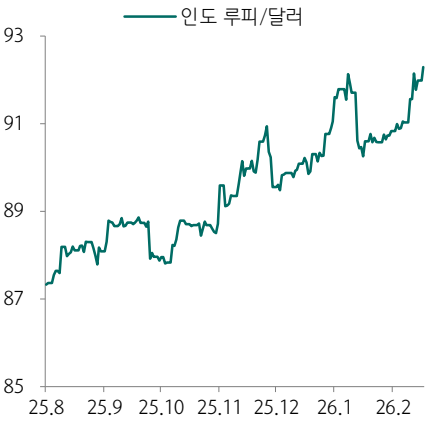

달러/파운드
1.40
1.36
1.32
1.28
1.24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미국달러/호주달러
0.72
0.69
0.66
0.63
0.6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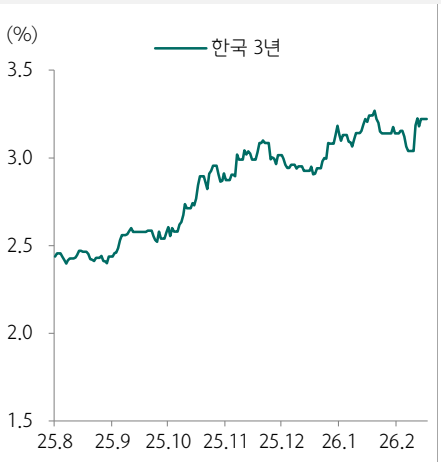

브라질 헤알/달러
6.0
5.6
5.2
4.8
4.4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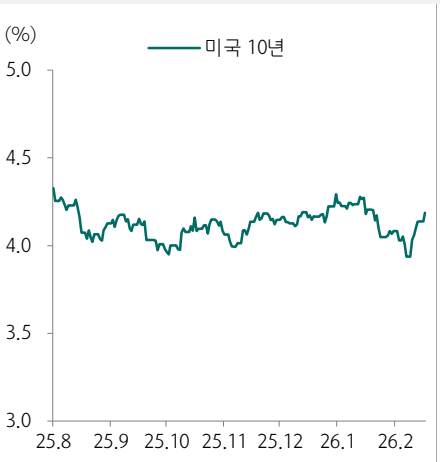

멕시코 페소/달러
20
19
18
17
16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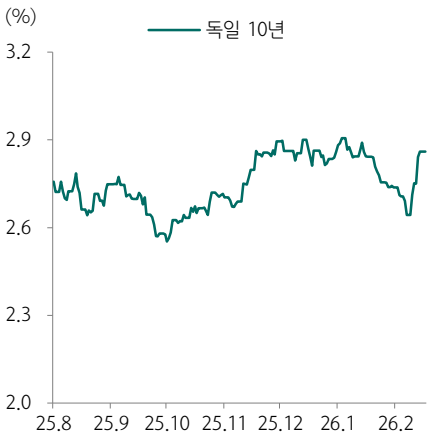

러시아 루블/달러
90
85
80
75
7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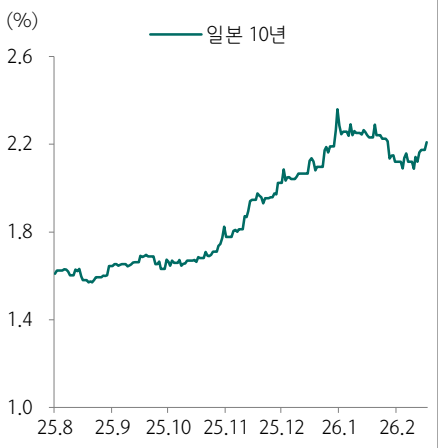

인도 루피/달러
93
91
89
87
85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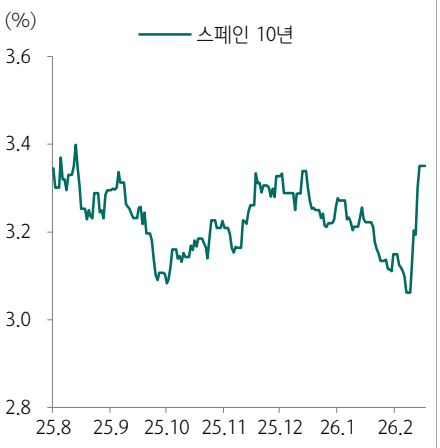
주요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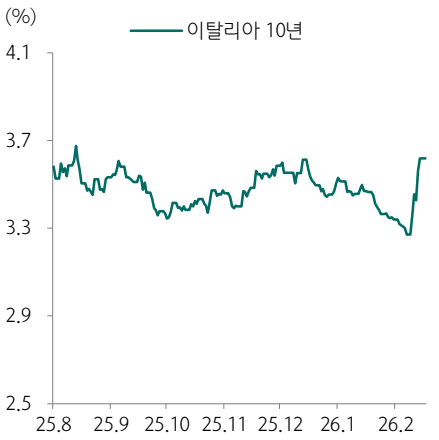

(%)
한국 3년
3.5
3.0
2.5
2.0
1.5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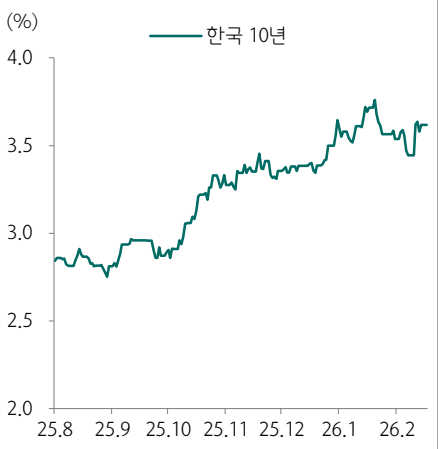

(%)
미국 10년
5.0
4.5
4.0
3.5
3.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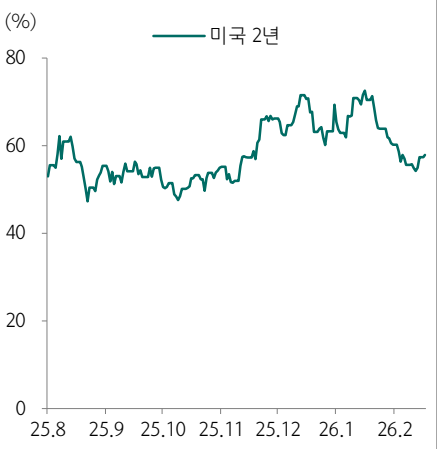

(%)
독일 10년
3.2
2.9
2.6
2.3
2.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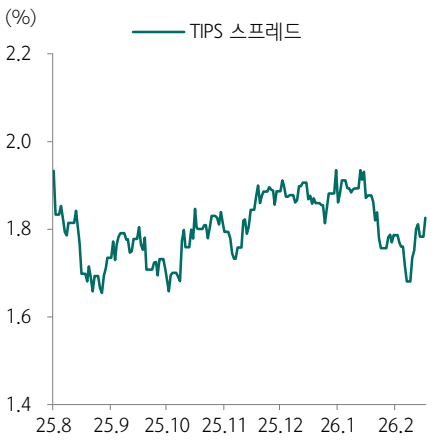

(%)
일본 10년
2.6
2.2
1.8
1.4
1.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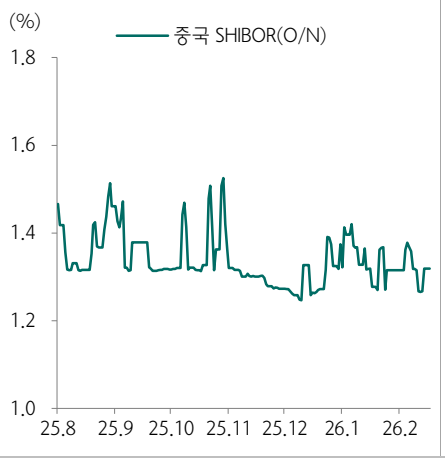

(%)
스페인 10년
3.6
3.4
3.2
3.0
2.8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
이탈리아 10년
4.1
3.7
3.3
2.9
2.5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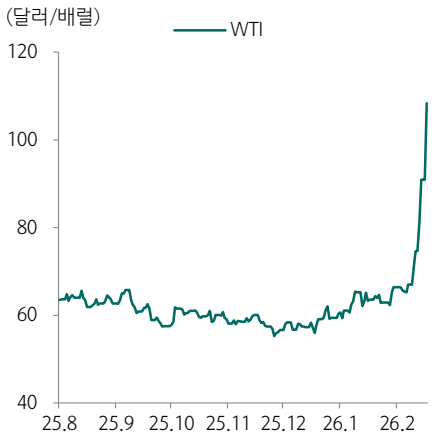

(%)
한국 10년
4.0
3.5
3.0
2.5
2.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
미국 2년
80
60
40
20
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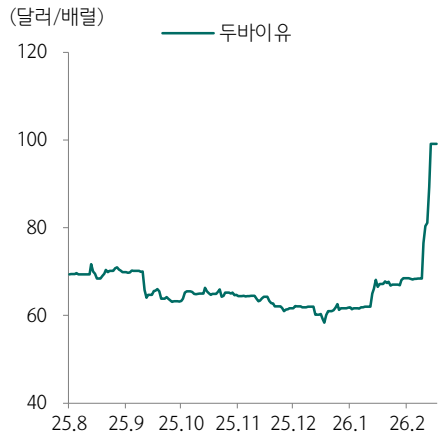

(%)
TIPS 스프레드
2.2
2.0
1.8
1.6
1.4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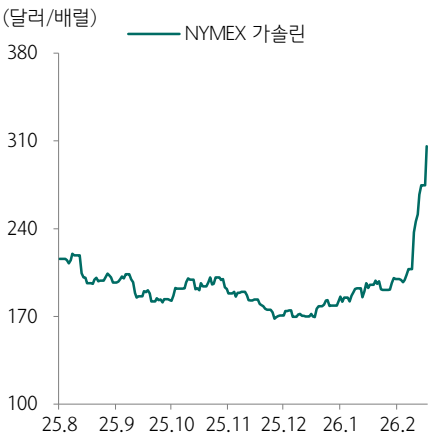

(%)
중국 SHIBOR(O/N)
1.8
1.6
1.4
1.2
1.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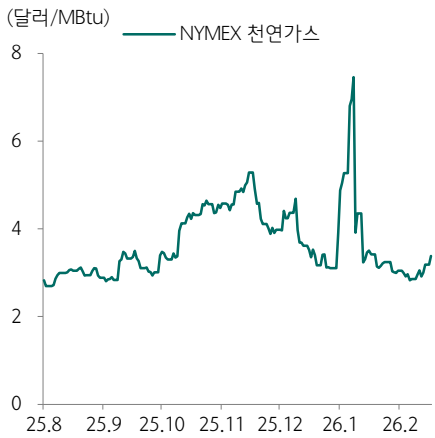
주요 원자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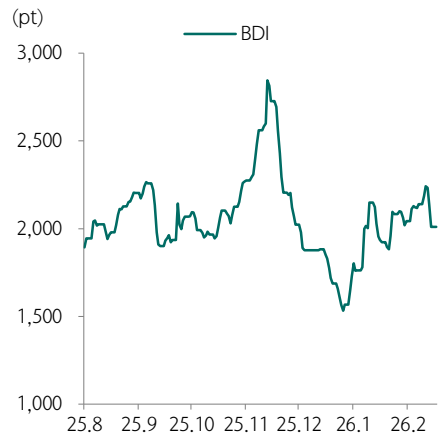

(달러/배럴)
WTI
120
100
80
60
4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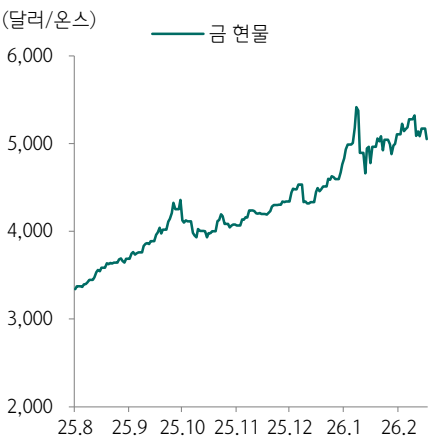
(달러/배럴)
브렌트유
120
100
80
60
4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달러/배럴)
두바이유
120
100
80
60
4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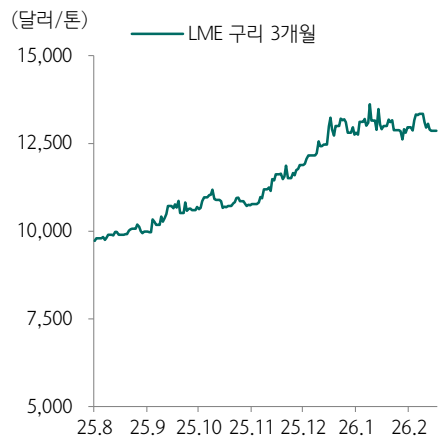

(달러/배럴)
NYMEX 가솔린
380
310
240
170
1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달러/MBtu)
NYMEX 천연가스
8
6
4
2
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pt)
BDI
3,000
2,500
2,000
1,500
1,0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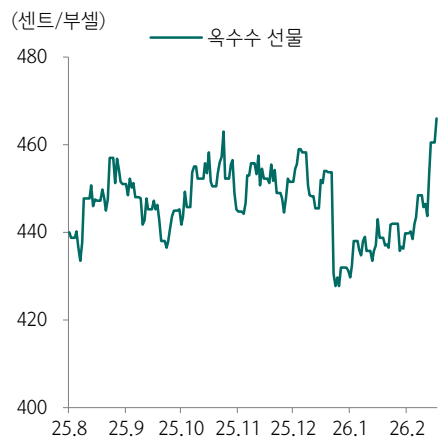

(달러/온스)
금 현물
6,000
5,000
4,000
3,000
2,0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달러/온스)
은 현물
160
120
80
40
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달러/톤)
LME 구리 3개월
15,000
12,500
10,000
7,500
5,0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센트/부셀)
소맥(밀) 선물
700
600
500
400
3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센트/부셀)
대두 선물
1,300
1,200
1,100
1,000
9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센트/부셀)
옥수수 선물
480
460
440
420
400
25.8
25.9
25.10
25.11
25.12
26.1
26.2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6년 3월 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강재구)는 2026년 3월 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